# **Objectified, Intl Juried Exhibition, CICA Museum, South Korea**

Responding directly to the call for submissions, I created a series of three 50x50 cm ChromaLuxe prints. Two of those were selected for inclusion in the CICA Museum International Exhibition, Objectified. The collective work pushed boundaries to the extent that the exhibition was designated "adult-only."

#### **Contextual Information**

- Type of dissemination	Gallery Exhibition
- Scope of dissemination	International
- Number of total entrants	ΝΑ
- Acceptance rate	ΝΑ
- Criteria for selection	Jury

- Other

### **Objectified: International Exhibition**

Exhibition



Fri, Mar 10, 2017–Sun, Mar 26, 2017 CICA Museum (map)

#### Objectified

Responding to a call from our friends at CICA, Object/fied, a ChromaLuxe Triptych on aluminum was created on the topic of objectification. This new work is scheduled to be included in an exhibition at CICA Museum, in Gimpo Si, South Korea.



## **Objectified**

March 10 - 26, 2017 2017.03.10. - 03.26

#### CICA Museum

Featured Artists 참여작가: Naama Attias, Brandin Barón, Oren Ben-Yosef, Courtney Campbell, Max Cleary, Erik Deerly, Abdoul-Ganiou Dermani, Gary Duehr, Malcolm Easton, Melissa Eder, Ben Ehrmann, Richard Gabriele, Jessica Goehring, Kevin H. Jones, Bahareh Karamifar, Hanna Kim 김한나, Nenad Milcevic, Wu Siou Ming, Davide Monciatti, Purple Moustacho, Andrew Norris, Oryan Oren-Galster, Jorge Cases Oyarzaba, Thomas Ruggio, Carol Scavotto, Nathan See, Alix Anne Shaw, Paul Stapp, Ko Tzu-an, Merav Tzur, Lars Vilhelmsen, Charlie Wayne, Nayeon Yang 양나연, Jhou-Yu, Madeline Zappala, Mark S. Zimmerman

#### Objectified

칸트의 미학과 인간의 대상화에 대한 비판은 현대미술의 중요한 철학적 근간이 되었다. 칸트에게 목적을 가진 아름다 움은 더 이상 아름다움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볼 때 느끼는 "아름답다는" 감정은 목 적이 없는 반면, 이성을 보고 느끼는 "아름답다는" 감정은 배고픈 것과 마찬가지로 목적성을 가지기 때문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포스트 모던 이후 시공간을 초월한 "미"에 대한 믿음은 사라졌지만, 서로의 치수 하나 하나, 주름 하나 하나에 신경쓰는 현 풍토에서 칸트의 시각은 진부하기보다는 오히려 신선하다.

하지만 대상화 (Objectified)가 주는 즐거움이 없다면 인생은 얼마나 무미건조하겠는가. 사람은 각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전체를 대상화하고 왜곡하며 꿈을 꾼다. "첫사랑," "이상형," "연애," "미녀," "미남," "사랑," 이 모든 것들은 상대에 대한 왜곡이며 환상이다. 사람은 그가 속한 문화에서 환상을 공유하기를 원하며 점 점 더 많은 사람이 그 환상을 공유하며 그 환상에 형태와 이야기를 만들어간다. 환상이 시간과 공간을 거치면서 그 거대해진 시선은 결국 사람에게로 돌아와 족쇄가 된다.